# 대중공사 '참종권 확대 · 공정선거' 결의

## 18일 '총무원장 선출제도' 주제 공사 종료… '절반의 성과'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주제로 40여 일간 전국을 순회하며 불자여론을 모은 대중공사가 5월 18일 서울 불광사에서의 2차 중앙대중공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대중공사에 참여한 대중들은 '참종권 확대'와 '공정선거 시행'을 골자로 한 논의결과물을 내놓았다. 이 결과물에는 여론조사서 선호가 높았던 '직선제' 추진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조계종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도법)는 5월 18일 서울 불광사에서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주제로 제2차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중공사는 △종단은 참종권이 확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부대중은 금품, 직위 등 일체 이익을 위해 크고 작은 모임을 만들지 않으며, 공정선거를 실현한다 △종단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총무원장 선거시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지역별 교구대중공사를 개최한다고 결의했다.

이 같은 논의결과물을 도출해내기까지는 진통이 있었다. 직선제를 선호하는 대중들 입장에 대해 "중앙종회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지역대중공사 결과를 확대해선 안된다"는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직선제 결의 채택에 반대하는 대중들이 퇴장하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선제' 추진으로 대중공사 결과를 내야 한다"는 남은 대중들의 주장과 "여론 전달에 충실해야 한다"는 대중공사추진위의 입장이 충돌해 2분간 휴식 시간이 진행되기도 했다.

### 논의 막판 '직선제' 명시 진통
### 도법 스님 "여론 전달에 충실"
### 즉석투표결과 확대해석 반발도
### 차기 대중공사 개최 제안

종합토론에서도 격론은 이어졌다. 일감 스님이 종합토론에서 선거 폐해 극복방안과 참종권 확대, 지역불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제안하자 '대중이 선택한 직선제를 보다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공동추진위원장 도법 스님은 "직선제 외에도 선거 폐해 극복방안과 참종권 확대 등 현행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러 참석자들은 지속적으로 직선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주제로 열린 대중공사가 5월 18일 서울 불광사에서의 2차 중앙대중공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사진은 2차 중앙대중공사 입재식 모습.

이런 분위기 속에 유지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직선제 61%라는 투표 결과를 대중공사 전체의견으로 모으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유 운영위원장은 "726명의 입장이 전체 불자 그리고 불교를 바라보는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중공사에서 즉석투표에 기반해 특정제도로 입장을 모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도 "(직선제 도입 후)미흡하고 폐해도 있겠지만, 우리는 1만 5천 명이다. 종교인들이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겠나. 어떻게 승가답게 할지를 고민하면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 도출 과정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직선제'라는 표현이 명기되지 않은데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법 스님이 "지역 대중공사 결론에 직선제가 나와 있다. 일은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흥선 스님이 "사부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획기적인 참종권의 확대"로 문구를 수정 제안하며 최종 채택됐다.

한편, 대중공사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중앙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중앙종회는 6월 21일 제206회 임시회를 열고 이 문제를 다룬다.

노덕현 기자

# 대구BBS, 5월 26일 20주년 기념식

## 미래희망 선포…공영 기능 강화 등 비전 제시

BBS대구불교방송(이하 대구BBS)이 대구 및 경북지역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지 올해로 20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대구BBS는 5월 26일 오후 3시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개국 20주년 기념 미래희망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기록영상 상영 등을 통해 2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 희망'을 제시한다. 또한 제2의 도약을 위해 불교 기간방송과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 강화, 신사옥 건립, 중계소 확충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우선 1부 미래희망 선포식에 이어 2부는 BBS 라디오 프로그램 '월호스님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시즌2'를 공개방송으로 진행된다. 행불선원 선원장 월호스님과 대구BBS의 진행자 효민스님이 사회를 맡고 최진희, 고한우, 야운, 타악퍼포먼스 공연단 '좋은 친구들'이 출연해 흥겨운 한마당을 마련한다.

대구BBS는 1996년 개국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중파 라디오 방송으로 전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 포항과 안동에 중계소를 개설하면서 가청권을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했다. 특히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실시한 '2006년도 라디오 청취형태 및 청취율' 조사에서 전국 종교방송 가운데 최고인 6.4%의 청취율을

### 오후 3시, 엑스코 오디토리움서
### 신사옥 건립, 중계소 확충 계획

기록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BS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스님은 "대구불교방송이 지난 20년간 대구.경북 불자들과 시도민들의 성원 덕분에 공영방송으로서 탄탄하게 자리매김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법 통과

##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 조사 · 추모사업 가능

### 피해자에 후손은 포함 안돼
### 연대회의 "아쉬움 남는 법안"

1945년 일본 히로시마 · 나가사키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들의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통과됐다. 원폭 투하 71년만의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이미 1992년부터 원폭 피해자들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교통비 등),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생활 수준, 건강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 실태조사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새 법안에 따라 구성되는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은 또 원폭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위령탑과 같은 추모 공간 등 기념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계는 합천 평화의집을 설립 · 운영하는 등 원폭 피해자들이 지원과 권익향상에 힘써왔다. 또한, 연대 단체인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구성에도 노력했다. 법안 통과 직후 연대회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원폭의 피해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장애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 후손들이 겪어야하는 다양한 피해들이 동반된다"면서 "이번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원폭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한 후손 문제가 제외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의 피해자 정의에서 원폭피해자의 자녀와 후손 등이 제외되었지만 실태조사는 피해자 자녀 등 후손을 포함하여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연대회의는 원폭피해자 자녀를 비롯한 후손에 대한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될 때까지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개정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2015년 4월 현재 국내에 생존해 있는 원폭 피해자가 2천50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과거 '원폭피해자협회'의 자료를 보면 1945년 일본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은 총 7만명이었고 그 중 4만명은 사망했다. 살아남은 3만명 중에서 2만3천명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나만의 무늬와 그림 만들어 나가는 것이 人文"

## 대한불교진흥원 5월 화요열린강좌 개최
## '이야기의 힘, 서양 고전과 만나다' 주제로

"고전을 읽는다는 건 잘 지어진 집을 하나씩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래서 타인과 편안히 교유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돼서 삶을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고전을 읽는 목적입니다. 다시말해 그들이 남긴 이야기와 글들을 읽으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준비 하는 것,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를 꿈꾸는 것, 그것이 고전을 읽고 난 뒤에 생겨나는 힘입니다."

5월 17일 대한불교진흥원 3층 대법당서는 김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가 '이야기의 힘, 서양 고전과 만나다'를 주제로 '5월의 화요열린강좌'를 진행했다.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의 저자인 김헌 교수는 "고전이란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만들어 진 것이지만, 만들어진 그 순간에 곧바로 고전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 읽어주고, 재해석하고, 재생산하며 보전하는 경우에만 고전은 '고전'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고전의 생명력은 특정 시대의 문제들에 깃든 보편성을 통찰하는 힘에서 비롯되며, 역사의 매순간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응하는 힘에서 확인됩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인문학의 '인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 나갔다.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삶의 주인공입니다. 이것은 싫어도 선택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입니다. 인문에서의 문은 무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인문은 자신의 인생에 무늬를 입히는 것이죠. 다시 설명하면 자신의 삶에 흔적을 남겨놓는 행위를 통틀어 인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5월 17일 대한불교 진흥원 3층 법당서 진행된 김헌 교수의 화요열린강좌 모습.

적 정보를 갖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 인문학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흔적을 본받게 됩니다. 그것이 인문을 받아 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흔적, 한참 전에 만들어 놓은 흔적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인문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인문학의 책들은 그 흔적들의 총체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의 설명은 또다시 이어졌다. "뜻깊은 무늬, 삶의 자취, 어떤 인문학적 정보를 받아 들여서 나만의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문적 행위입니다. 인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일상에도 존재합니다. 오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 또한 여러분의 인문입니다. 표정, 몸짓, 말, 욕설 등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겨놓은 무늬인 것이죠. 이것들이 곧 여러분들의 인문, 바로 나 자신의 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무늬를 남겼는가, 혹시 실수하는 것은 없는가 등등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의 흔적 즉 인문을 남깁니다. 어떤 경우는 아름다운 무늬로, 어떤 경우는 지저분한 낙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상대방을 한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가 내 가슴에 못을 박았어 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인문을 남길 것인가.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양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의식하고 살 때 우리 삶의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김주일 기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달마도의 인연으로 소원성취한 사람들!

달마도의 대가 법용스님은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고통 받고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불자님들께 소원성취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법용스님은 몸이 아픈 환자를 위해 산에 가서 약초를 구해 달여 주는 마음으로 얼굴을 보고 본인에 맞는 달마도를 직접 그려 주신다고 합니다.

사업성취, 부동산매매, 취업, 결혼, 건강, 임용고시, 각종 시험합격, 승진, 금전운, 삼재소멸, 안전운전 등 무언가 간절히 원하고 항상 답답함에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불자님들은 오셔서 받아 가시면 됩니다. 달마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돌담을 쌓는 데는 큰 돌만 필요한게 아니고 작은 돌도 필요하듯이 집안에도 달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용스님의 영험한 행운의 달마도와 좋은 인연으로 소원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장 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379-1, 3층 달마보급원 (지하철 부산역 쇼핑센터 3번출구 앞)
문의전화 051-907-6444
홈페이지 www.bydalma.com